

	<h1>보도자료</h1>	2022. 3. 29(화) 즉시
대변인: 전수미 010-9970-7994 / 사무국장: 강성권 010-8928-1672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갈라치기, 이번에는 장애인인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25일부터 나흘동안 무려 10차례에 걸쳐 장애인 투쟁을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제25차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시위 진행 중에도 페이스북에 “조건 걸지 말고,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 삼는 시위방식을 중단하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이준석 대표가 ‘시민불편’ 프레임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가르고 있으며, 선거를 위해 장애인을 도구화하는 몰염치한 정치인임을 보여줍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연일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위해 교통을 방해한다며 장애인 투쟁에 대한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과 탈시설 권리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인수위원회에서 장애인 권리에산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이 대표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여성들과 흑인들이 참정권과 민권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섰을 때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비판한 극우파 백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대표는 누구의 처지가 더 절박한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몰염치한 계산을 바탕으로 선거를 위한 표 물이를 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라치기의 희생양은 장애인이지만 다음에는 누가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희식)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성별과 세대를 분할하고 특정국가에 대한 호불호를 갈라 대한민국 분열을 조장한 행위에 대해 비판합니다.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고 전선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 시위를 ‘비문명적 관점의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장애인도 엄벌의 대상임을 강조하여 장애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언술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